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동호회 : 오늘 오후 청파성서학당 이후에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사진전 : 얼마 전에 다녀온 가을소풍 사진전이 오늘부터 열립니다. (장소 : 교회 복도)

기획위원회 모임 : 이번 주 토요일(14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을걷이 : 찬양대가 주관하는 찬양의 가을걷이가 22일 주일 오후 1:30에 열립니다.

속회 신청 : 내년부터 새롭게 속회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 흥천 친환경 절임배추 주문 예약 받습니다. 10kg에 21,000원이며 11월 14일과 28일에 배송됩니다.

신앙실천 :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생각하며 그 어느 때보다 물을 아껴 씁시다.

1부 예배	삼상 1:4-20 / 시 113	2부 예배	히 10:11-14 / 막 13:1-8
-------	-------------------	-------	-----------------------

오늘 식당 봉사 :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김현주 김문주 이한님 조우석 한성건
 다음 주 식당봉사 : 이순정 오복순 원인혜 박안수 이윤석 이은미 장동훈 이광욱
 오늘설거지봉사 : 2여선교회(61-65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3여선교회(56-60세)
 커피 판매 봉사 : 5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24주 】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4. 주 우리 하나님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산과 들의 나무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단풍처럼 하루하루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낙엽처럼 날마다 더 비워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순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좁아진 마음을 가지고 사느라 지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만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배제하며 살아왔습니다. 품이 넓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품처럼 넓혀주십시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렘31:13,14 인도자
 ♣ 교 독 문 80. 고후 4장 다 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대표기도 김정민 장로
 응답송 찬양대
 찬 양 391. 오 놀라운 구세주 다 함께
 ♣ 성경봉독 1. 룻3:1-5 히9:24-28 막12:38-44 임창국 선생
 II. 잠 12:10-19 이수정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오 신실하신 주 찬양대
 말 씀 I. 그리운 친구 김재흥 목사
 II.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 길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상준 최경미 광정자 구명자 국지연 김광일 이부용 김기성 이은정 김남종
 오복선 김명하 오형일 김명희 김승현 김김수 김시영 김시영 김정길 김최숙화
 김정주 김정미 김정훈 이진영 이진영 김지현 김지현 김필순 김현영 김해진 김박상규
 박석희 조항미 박숙미 박시내 박용진 김지현 김용원 박윤숙 박재영 이현정 박방민 정식
 배삼순 배재경 이수정 백묘현 서원금 서정순 신정훈 이은미 신진식 변혜정 식월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안현숙 유금주 윤주원 최윤선 이계선 이소순 이근식
 신영신 이미휘 이민범 공재량 이범석 류정욱 이현성 권현숙 이우상 이계원
 이유진 이재삼 전정현 임영영 정경례 임주빈 최현옥 최현호 장동훈 정은춘
 정두리 정연희 정원석 김현영 정종삼 조문규 최정숙 최지연 최정훈
 무명

감사헌금

공종철 구자경 김시영 김 울 김호연 장성호 무명3

녹색꿈헌금

안준용 이진희 안태호 무명

생일감사헌금

박기영 박옥식 조항범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백혜숙	박성희		
안디옥	신진식	최경미		
가나안	장영숙	신영신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시온	권미숙	박미영		
에베소	김금순	김금순		
빌립보	곽권희	윤수진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다메섹	박혜경	박혜경		
두란노1	김재흥	오자영		
두란노2	김재흥	송형운		
두란노3	이범석	이진영		
두란노4	이범석	곽상준		
두란노5	신진식	이오복		

기차를 타고 과수원을 지나면서

사과나무 아래에는 풀들이 무성하다
 나무의 껍질은 거칠고 육감적인데
 아무렇게나 무성하게 움푹뚱 자라는 풀들

우리는 불행을 견뎌내지 못한다
 바위들처럼
 허허벌판에
 벌거숭이로 흔들거린다

약간의 상처만 생겨도 우리는 죽고 만다
 이 기차에 탄 사람들은 모두 낮설다
 한 사람이 복도를 걸어온다

나는 그를 용서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도 나를
 용서하기를

- 로버트 블라이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586. 어느 민족 누구게나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 앞에는 의의 길과 악의 길이 놓여있습니다. 날마다 의의 길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자기만 옳다는 생각과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길을 버리고 생명과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다 함께:	아멘. 우리에게 참된 의의 길과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길을 멀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의 길에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동교회	저녁성경연구 / 강의: 신진식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공동기도	이용현 선생
	김기석 목사	장영숙 전도사	유상진 집사

11월	영접위원	김정민 권혁순 정현모 이해령 유경순 박경원
	헌금위원	한완식 김경혜

나처럼 사는 건

들의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그 흔한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풀도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음~

저 긴 강이
넓은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세월의 강이 침묵의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풀도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음~

주어진 삶을 산다는 것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것은 매여 있다거나, 한정된 장소, 정해진 운명, 일상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창조의 숨을 간직한 채 산다는 것을 말한다.

아주 작은 생명체들은 세상이 모르는 사이, 땅과 물을 건강하게 만든다. 조그만 생명체들이 제 숨을 쉬지 않게 된다면 땅도 물도 이내 썩게 된다.

생각하면 이 지구상에서 '제 숨'을 쉬지 않고 사는 생명체는 '인간' 밖에 없는 듯하다. 착취와 약탈과 파괴를 일상으로 사는 인간은 잔인하고 포악한 짓에 빠져 자신들이 하는 짓이 도무지 뭘지 모르고 사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것은 '어떤 나쁜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산업사회에 사는 모든 인류를 말한다. 심각한 문제는 '모른다'는 것에 있다.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망각과 폭력의 중독성에 있다.

폭력은 쉬이 보이기도 하나, 공정해야 할 법과 제도와 질서 속에서도 얼마든지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며 또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심각한 해를 끼친다. '무한 경쟁'이라는 폭력적 시스템은 언뜻, 마치 민주주의나 자유를 연상케 한다. 언론, 광고 심지어 종교와 교육에서 까지 이를 부추긴다. 가리지 말고 층을 두지 말고 마음대로 경쟁을 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대결이 이치에 맞는 경쟁일리가 없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서로 겨뤄보라고 한다면 공정한 경쟁도 아니다. 그러므로 강대국과 약소국이 자본과 기술을 무기로 하는 경쟁은 '무한폭력'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제 숨' 더 잘 쉬려고 '남의 숨'마저 교묘히 빼앗아 쉬는 잔인한 구도에 다름 아니다.

제 숨 쉬지 않는 세상은 평화가 깨진 세상이다. 더불어 살라는 창조의 숨이 멀어지면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살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창조를 행하신 그 분의 뜻이 아니요, 인간의 문명으로 인한 참담한 결과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스포츠카를 타고 끝 간 데 없이 치달는 어리석음의 끝이다. 대량생산과 마구잡이 소비로 이어지는 쓰레기 만듦기와 과학기술의 오만함으로 빚어지는 유전자 조작은 지구와 인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다. 막다른 골목에 선 인류의 문명이 숨을 헐떡이며 기대어 있다.

'발전과 혜택'이라는 유혹의 문패를 걸어놓고 온갖 형태의 스피드를 추구하지만, 대형마켓과 백화점에선 물건과 사람으로, 고속도로에서는 각종 자동차들로 꽉꽉 막혀 꼼짝도 못하는 우스꽝스런 장면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게 된다. 온갖 오물을 흘려보내며 썩을 시간도 주지 않는 잔인한 횡포는 인간만이 행하는 물에 대한 야만이요, 땅에 대한 만행이다.

흙으로 지어져 그 분의 생기(숨)을 받아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인간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는 조금만 목상을 해봐도 알 일이다. 끝내 종교의 행위만 드러내고, 만드신 이의 목적을 잃는다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것임이 분명하다.

오늘도, 들의 꽃이 산의 나무가 말한다. 세월의 강이 침묵의 바다가 인류의 귀에 들려준다. 제 숨 쉬며 살라고 말한다.

강아지풀이 바람에 흔들린다. 다행이다. 자연만물이 (아직은) 입을 완전히 다물지는 않았으니 말이다.